



자유주의 정보 22-24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eph Kast,

How One of the Most Renowned Architects in History (Accidentally) Exposed the
Problems of Central Planning,

26 May, 2022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영아파트는 왜 철거되었나

프루이트-아이고(Pruitt-Igoe) 도시 주택 프로젝트는 1950년대 세인트루이스의 '도시 황폐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야마사키 미노루(Minoru Yamasaki)의 건축 경력 중 "하나의 큰 실패"로 남았다.

사회라는 것은 과연 설계될 수 있을까? 미국의 건축가 야마사키 미노루는 적절하게 계획된 건물에 둘러 쌓인다면 인간 본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많은 뉴딜 계획과 마찬가지로 프루이트-아이고 역시 좋은 의도, 즉 중앙 집중식 계획 및 강력한 정부 권력은 사람들의 권리나 개인적인 선택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더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세인트루이스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인트루이스 시장인 민주당 소속 조셉 다스트, 그리고 공화당 소속 관리들조차 도시에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스트는 이 사건을 뻔뻔스럽게 표현했다: "우리는 우리 도시의 마음을 재건하고, 개방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빈민가가 모든 본질적인 악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잘못이었다.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비록 1948년 실시된 투표에서 지역 거주자들은 고밀도 공공 주택 프로젝트 제안을 거부하긴 했지만 연방 정부의 자금이 대규모로 지원되면서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에 저항하기

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프루이트-아이고'라는 고밀도 공공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도시 지도자들은 프로젝트에서 성장하는 대도시를 수용하고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야마사키 미노루라는 유망한 젊은 건축가를 선택했다.

야마사키는 가능한 한 많은 가정이 건물에 거주하게 하는 규모의 경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했다. 야마사키의 제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건너 뛰기"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세 번째 층마다 멈췄으며, 더 많은 유닛을 위한 공간을 절약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상호 작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지역 사회 참여를 장려했다. 복도는 넓고 거리와 같았고 고층 건물 내부의 일종의 마을 광장을 모방했다.

도시 지도자들은 이제 빈민가 주민들이 가장 부유한 주민들보다 도시의 더 웅장한 전망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계획가들은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에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많은 실업자 가정이 아파트를 가져 갔고, 이는 임대료 수입이 건물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복지법에 따라 편부모만 복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혜택 없이 함께 머물든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헤어져야 했고 돌아오지 않았다. 곧 프루이트-아이고는 대부분 대규모의 한부모 가정으로 채워졌다. 건물에 아버지가 부족하여 프루이트-아이고에서 범 죄는 빠르게 보편화되었고, 아이들은 갭단에 합류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손상시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갭단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었고 갭단의 희생자들이 생겨났다.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창문과 가로등에 벽돌과 바위를 던지며 놀았다. 지상층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점점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세인트루이스는 프루이트-아이고가 문제 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연방 정부, 세인트루이스 주택 당국, 주 및 세인트루이스 시는 모두 단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문제를 회피했다.

야마사키는 5년 만에 프로젝트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프루이트-아이고와 관련 "개탄스러운 실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950년대 후반까지 그는 "수천 명을 정확히 닮은 공간 단위에 수용하는 비극"에 대해 웅변적인 연설을 했는데, 이는 "확실히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상을 육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의 최종 설계는 원래 구상과 달랐지만, 그는 사람들의 삶이 도시 디자인을 통해 효

과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1972년 단지내 건물 3동이 철거되었고 1976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물도 마침내 철거되면서 프루이트-아이고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랜 경력을 통해 야마사키는 세계무역센터(쌍둥이 빌딩), 공항, 영사관, 컨벤션 센터 및 대학 건물 등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그러나 프루이트-아이고는 그의 명성을 훼손했고, 그의 후기 작품들에도 타격을 입혔다. 1986년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부고 기사에서 프루이트-아이고에 관한 섹션을 다음과 같은 제목과 함께 별도로 실었다: "하나의 큰 실패".

결국, 야마사키가 프루이트-아이고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은 영원한 실패라는 다음의 예견일 것이다: "건축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제적인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정부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으며,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권리가 파괴될 뿐이다.

번역: 김보미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one-of-the-most-renowned-architects-in-history-accidentally-exposed-the-problems-of-central-planning/>